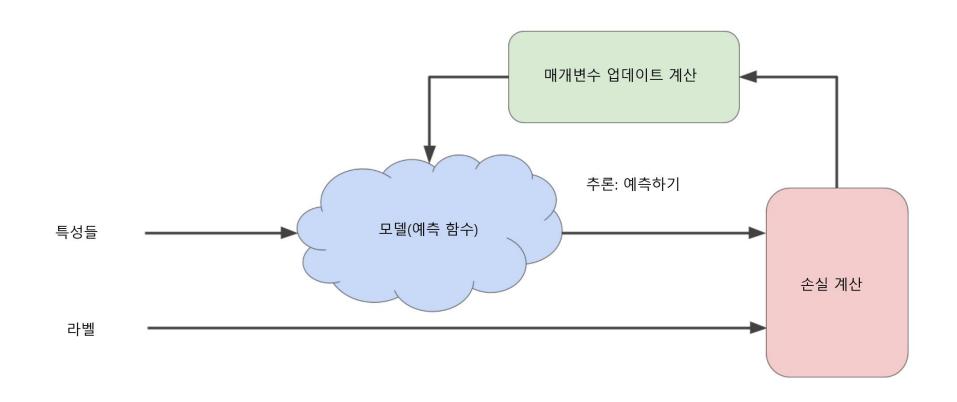
Reducing Loss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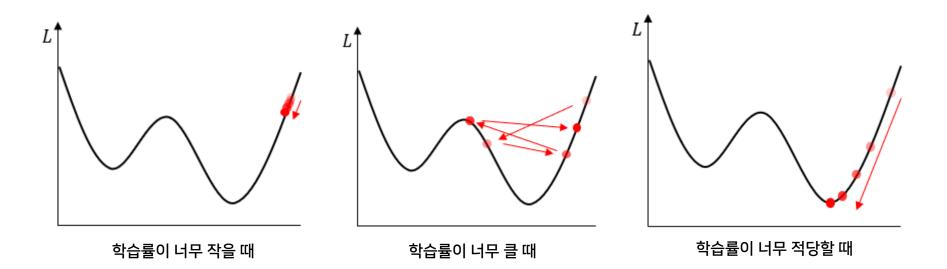
□ 경사하강법 (Gradient Descent Algorithm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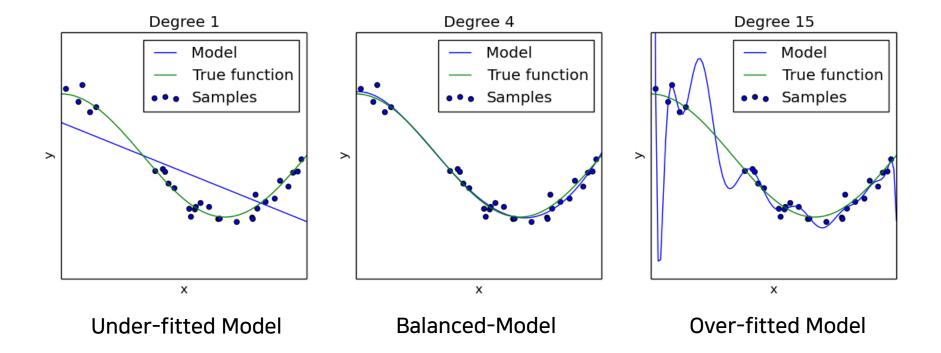
Reducing Loss

□ 경사하강법 (Gradient Descent Algorithm)

- 경사하강법 알고리즘은 기울기에 학습률 (Learning Rate) 또는 보폭이라 불리는 스칼라를 곱하여 다음 지점을 결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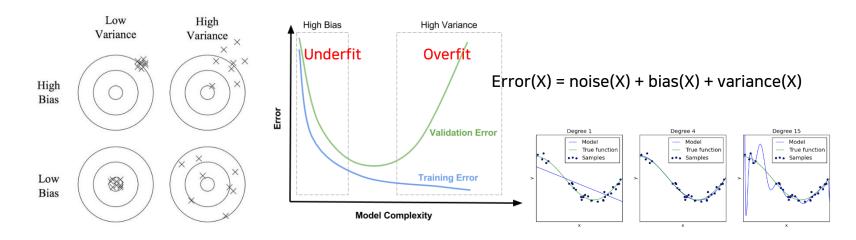


□ 적당히…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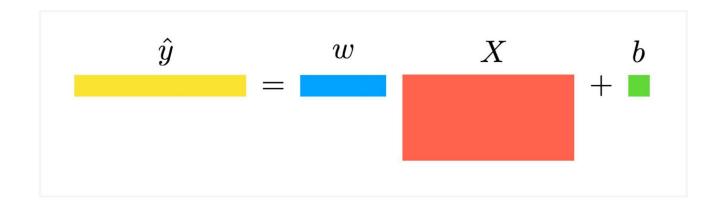


□ 편향-분산 (Bias-Variance) Trade-off

- 편향 :학습 알고리즘에서 잘못된 가정을 했을 때 발생하는 오차
- 분산 : 트레이닝 셋에 내재된 작은 변동 때문에 발생하는 오차
- 모델을 선택할 때,
 - 트레이닝 데이터의 규칙을 정확하게 포착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,
 - 보이지 않는 범위에 대해서 일반화(generalization)까지 하는 것이 이상적 (But, 불가능)



□ 미분 기반의 학습



$$\hat{y} = wX + b$$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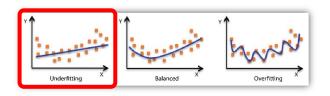
$$\mathcal{L} = \frac{1}{m} ||\hat{y} - y||^2$$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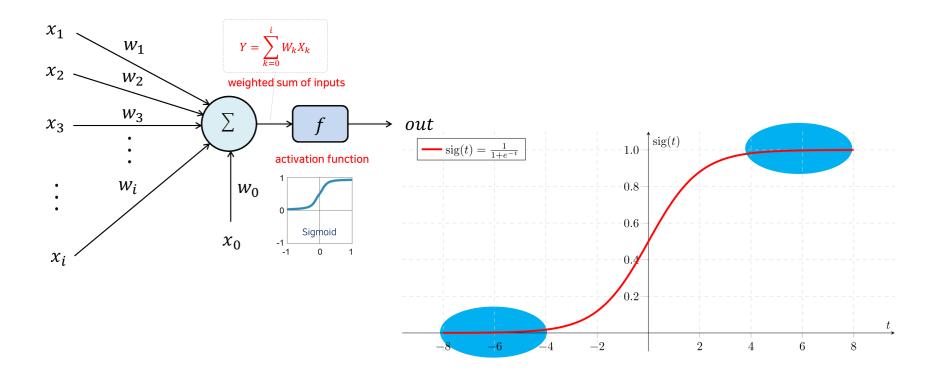
$$\frac{\partial \mathcal{L}}{\partial w} = \frac{2}{m} (\hat{y} - y) X^{\mathsf{T}}$$

$$\frac{\partial \mathcal{L}}{\partial b} = \frac{2}{m} (\hat{y} - y) \vec{1}$$

Underfitting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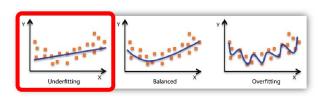
- 원인: 기울기가 0인 지점 존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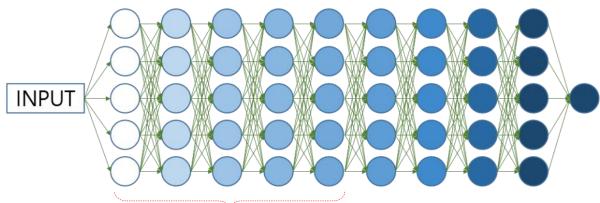




Underfitting

- 기울기 소실 (Vanishing Gradient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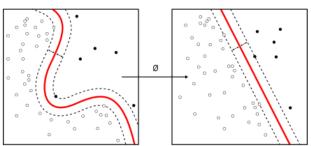


뒤로 갈수록 학습이 잘 안됨

Weight의 업데이트 = 에러 낮추는 방향 X 학습률 X 기울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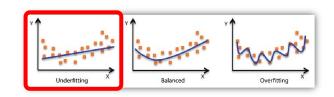
$$-\gamma \nabla F(\mathbf{a}^{\mathrm{n}})$$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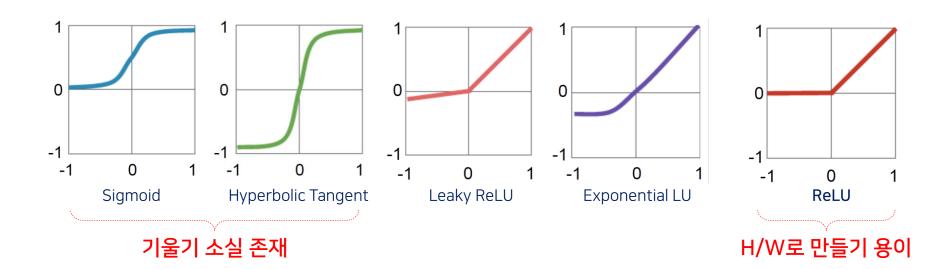
$$\gamma \nabla F(\mathbf{a}^n)$$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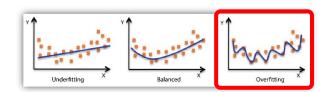
Underfitting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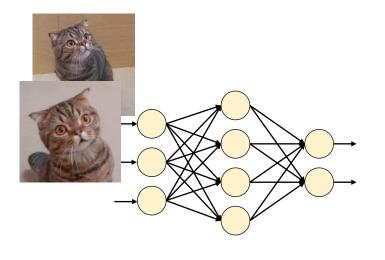
- 해결
 - 활성화 함수의 변경으로 해결
- 다양한 활성화 함수





- 원인
 - 매개변수가 많고 표현력이 높은 모델
 - 훈련데이터가 적을 때







뚱뚱해서 고양이 아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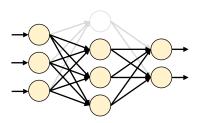


갈색이라 고양이 아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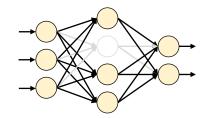


귀쳐져서 고양이 아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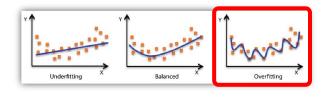
- 해결
 - Dropout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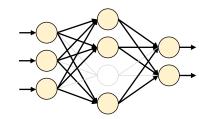
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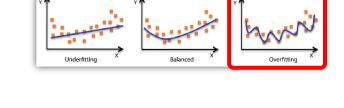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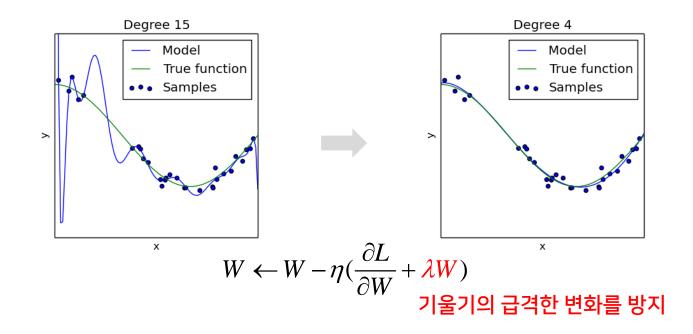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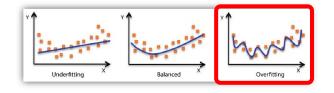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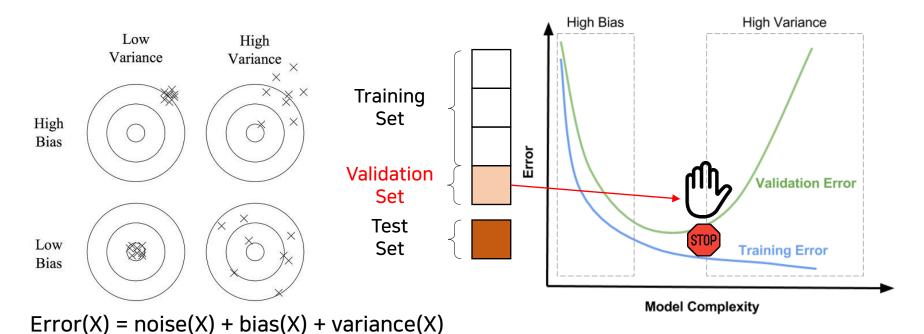
- 해결
 - Weight Decay (Regularization)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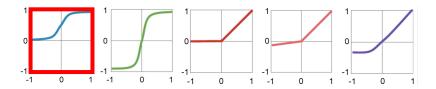
- 해결
 - Validation Set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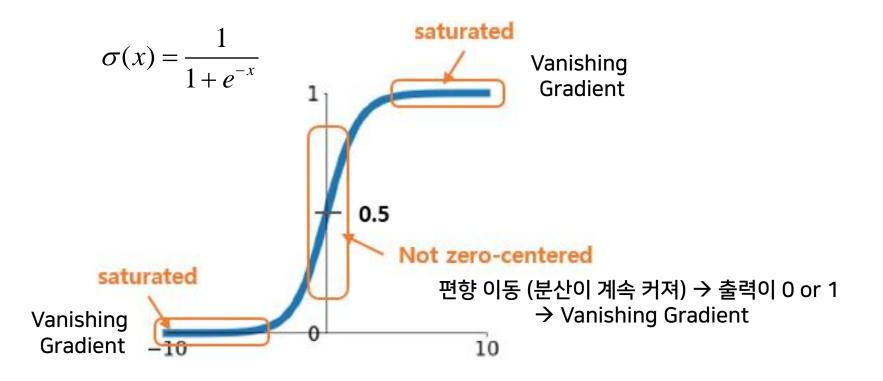




□ Activation Functions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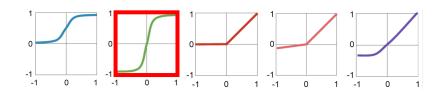
Sigmoid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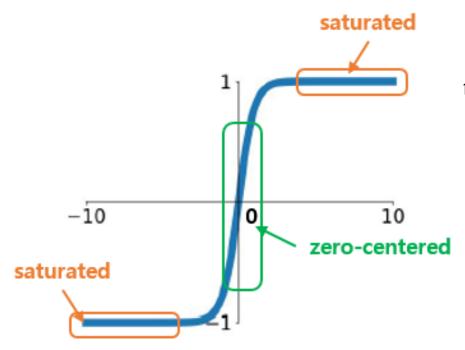




Activation Functions

- Hyperbolic Tangent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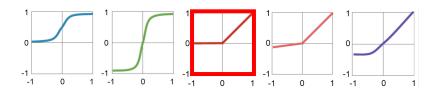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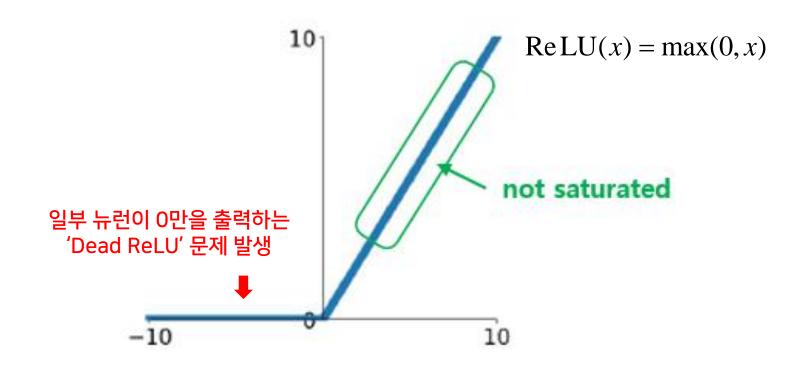


$$\tanh(x) = \frac{1 - e^{-x}}{1 + e^{-x}}$$
$$= \frac{2}{1 + e^{-2x}} - 1$$
$$= 2\sigma(2x) - 1$$

□ Activation Functions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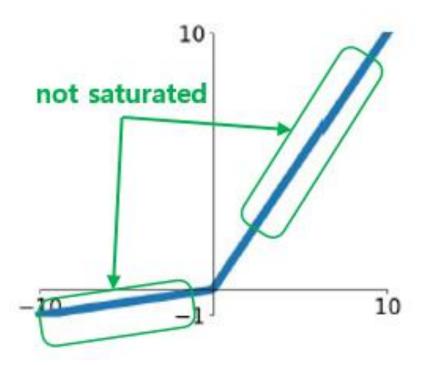
Rectified Linear Unit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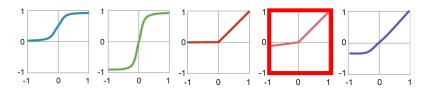




Activation Functions

LeakyReLU & PReLU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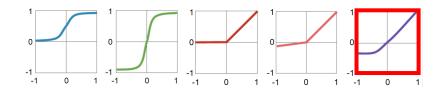


Leaky Re LU_{α}(x) = max(αx , x)

PReLU(Parametric ReLU)는 Leaky ReLU와 식이 동일하지만, LeakyReLU에서 하이퍼파라미터 인 α 를 가중치 매개변수와 마찬가지로 α 의 값도 학습되도록 역전파에 의해 α 의 값이 변경되는 함수. PReLU는 대규모 이미지 데이터셋에서는 ReLU보다 성능이 좋았지만, 소규모 데이터셋에는 오버피팅 될 위험

Activation Functions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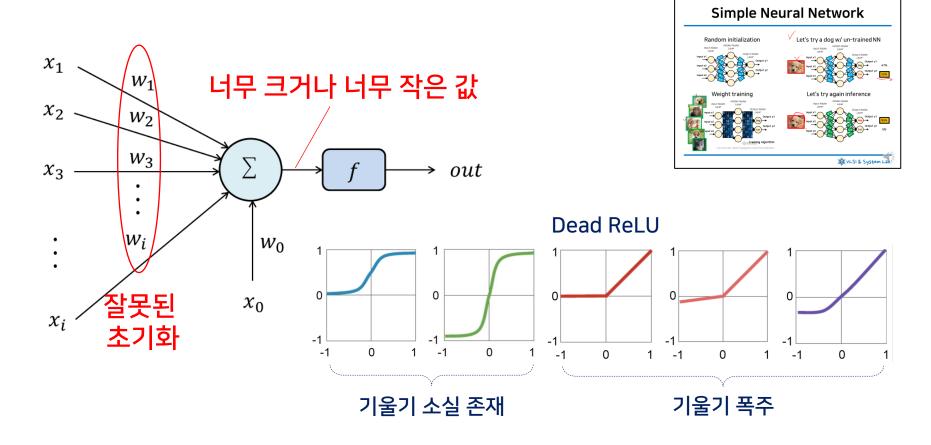
- Exponential Linear Unit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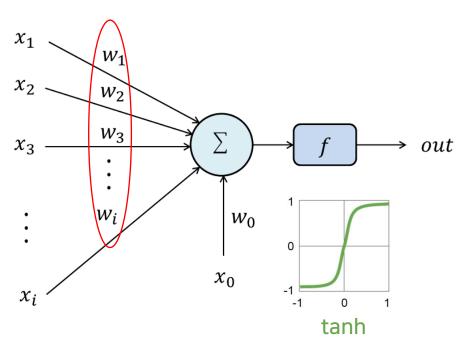
$$ELU_{\alpha}(x) = \begin{cases} \alpha(\exp(x) - 1) & \text{if } x < 0 \\ x & \text{if } x \ge 0 \end{cases}$$

- x < 0 일 때 ELU 활성화 함수 출력의 평균이 0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편향 이동이 감소하여 그래디언트 소실 문제를 줄여준다. 하이퍼파라미터인 a는 x가 음수일 때 ELU가 수렴할 값을 정의하며 보통 1로 설정
- x < 0 이어도 그래디언티가 0이 아니므로 죽은(dead) 뉴런을 만들지 않는다.
- a = 1일 때 ELU는 x = 0 에서 급격하게 변하지 않고 모든 구간에서 매끄럽게 변하기 때문에 경사하강법에서 수렴속도가 빠르다.

□ 가중치 초기화 (Weight Initialization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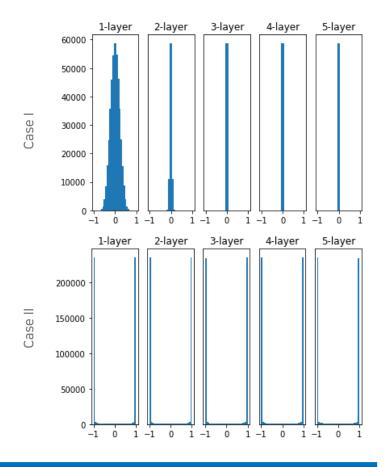


□ 가중치 초기화 (Weight Initialization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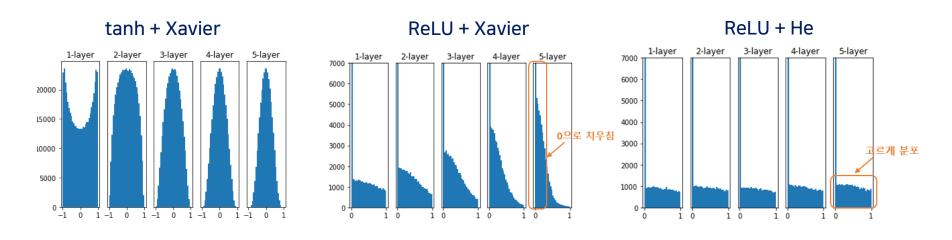
Case I : $(\mu, \sigma) = (0, 0.01)$

Case II : $(\mu, \sigma) = (0, 1)$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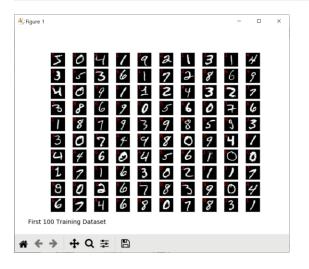
□ 가중치 초기화 (Weight Initialization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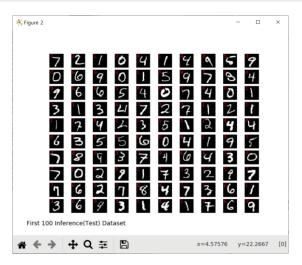
- Xavier 초기화 (tf.contrib.Xavier_initializer)
 - 신경망 깊이가 문제 (기울기 소실/폭주)를 일으킴 ? → 너무 크지도 너무 작지도 않게 레이어 수로 나누자!
- He 초기화 (tf.keras.initializers.he_xxx): ReLU에서도 잘 되게 해보자



□ MNIST Dataset (손글씨-숫자 인식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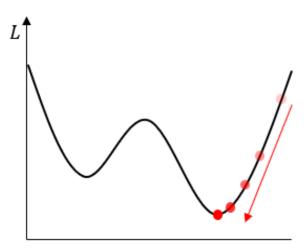
파일	목적
train-images-idx3-ubyte.gz	학습 셋 이미지 - 55000개의 트레이닝 이미지, 5000개의 검증 이미지
train-labels-idx1-ubyte.gz	이미지와 매칭되는 학습 셋 레이블
t10k-images-idx3-ubyte.gz	테스트 셋 이미지 - 10000개의 이미지
t10k-labels-idx1-ubyte.gz	이미지와 매칭되는 테스트 셋 레이블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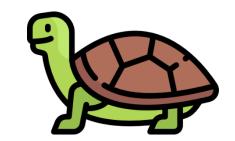
□ MNIST Dataset (손글씨-숫자 인식)

파일	목적
train-images-idx3-ubyte.gz	학습 셋 이미지 - 55000개의 트레이닝 이미지, 5000개의 검증 이미지
train-labels-idx1-ubyte.gz	이미지와 매칭되는 학습 셋 레이블
t10k-images-idx3-ubyte.gz	테스트 셋 이미지 - 10000개의 이미지
t10k-labels-idx1-ubyte.gz	이미지와 매칭되는 테스트 셋 레이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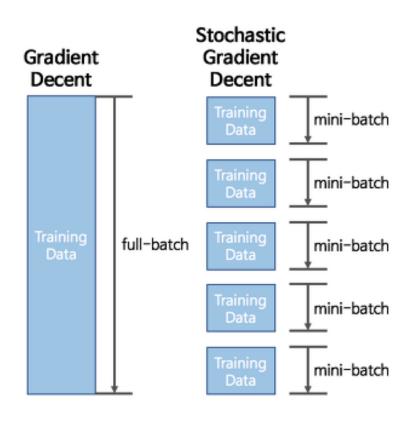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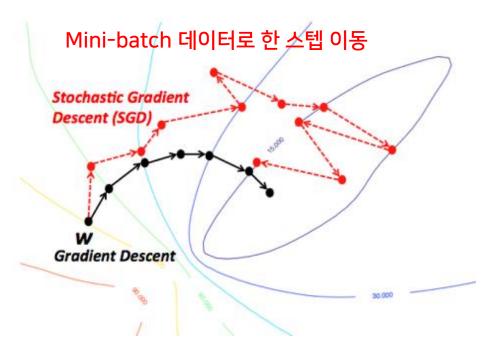
Normal Gradient Descent 기반 학습

55000개 데이터를 넣고 한 Step 55000개 데이터를 넣고 한 Step 55000개 데이터를 넣고 한 Step



Stochastic Gradient Descent (SGD)





More than SGD (Stochastic Gradient Descent)

- SGD
 - 경사하강법은 무작정 기울어진 방향으로 이동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탐색경로가 비효율적이어서 한참을 탐색
- 다른 Optimizer들
 - Momentum / Nesterov Accelerated Gradient (NAG)
 - Adaptive Gradient (Adagrad)
 - RMSProp
 - Adaptive Delta (AdaDelta)
 - Adaptive Moment Estimation (Adam)

Learning Notation

$$- \quad \theta = \theta - \eta \nabla_{\theta} J(\theta) \quad \left\{ \begin{aligned} \theta &: \text{Parameter} \quad \eta : \text{Learning Rate} \quad J(\theta) : \text{Loss Function} \\ \nabla_{\theta} J(\theta) &: \text{Gradient of Loss} \end{aligned} \right.$$

■ Momentum

- Gradient Descent를 통해 이동하는 과정에 일종의 '관성'을 주는 것
- Time step t 에서의 이동벡터

$$\begin{split} \theta &= \theta - v_t \\ v_t &= \gamma v_{t-1} + \eta \nabla_{\theta} J(\theta) \end{split}$$
 얼마나 momentum을 줄 것인지 에 대한 momentum term으로, 보통 0.9 정도의 값을 사용
$$&= \eta \nabla_{\theta} J(\theta)_t + \gamma \eta \nabla_{\theta} J(\theta)_{t-1} + \gamma^2 \eta \nabla_{\theta} J(\theta)_{t-2} + \cdots \end{split}$$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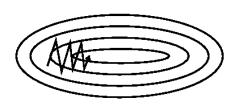
Learning Notation

$$- \theta = \theta - \eta \nabla_{\theta} J(\theta)$$

 θ : Parameter $~\eta$: Learning Rate $~J(\theta)$: Loss Function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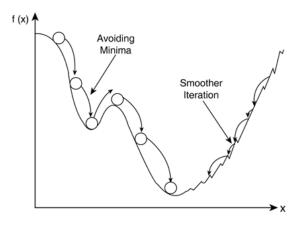
 $abla_{ heta}J(heta)\,$: Gradient of Loss

□ Momentum





방향을 좀 더 잘 찾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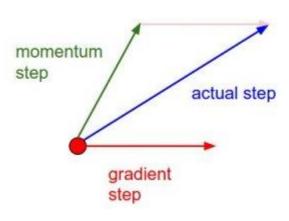


Local Minima에서 탈출 가능

But, 과거에 이동했던 양을 변수별 로 저장해야하므로 변수에 대 한 메모리가 기존의 두배

□ Nesterov Accelerated Gradient (NAG)

Momentum update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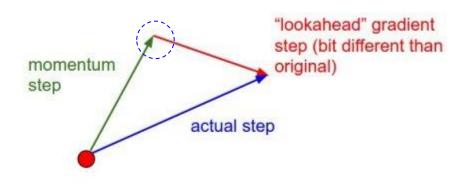


$$\theta = \theta - v_{t}$$

$$v_{t} = \gamma v_{t-1} + \eta \nabla_{\theta} J(\theta)$$

현재 위치에서의 기울기와 모멘텀 스텝을 독립적으로 계산하고 합침

Nesterov momentum update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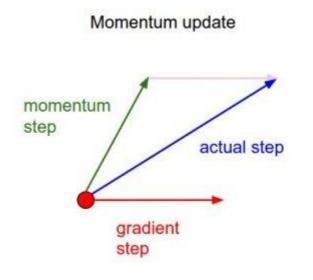


$$\theta = \theta - v_{t}$$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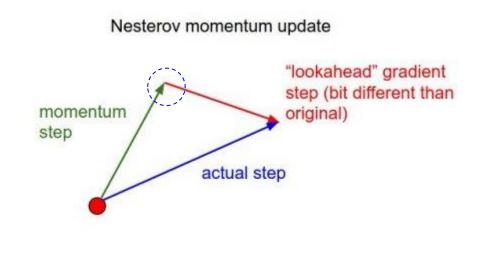
$$v_{t} = \gamma v_{t-1} + \eta \nabla_{\theta} J(\theta - \gamma v_{t-1})$$

모멘텀 스텝을 먼저 이동했다고 생각한 후 그 자리에서의 기울기를 구해서 기울기 스텝을 이동

Nesterov Accelerated Gradient (NAG)



멈춰야 할 시점에서도 관성에 의해 훨씬 멀리 갈수도 있음



일단 모멘텀으로 이동을 반정도 한 후 어떤 방식으로 이동해야 할 지를 결정

(모멘텀 방식의 빠른 이동 + 적절한 시점에서 제동)

Adaptive Gradient (Adagrad)

- 자주 등장하거나 변화를 많이 한 변수들의 경우 최적점에 가까이 있을 확률이 높음

'지금까지 많이 변화했던 변수들은 step size를 작게 하고, 지금까지 많이 변화하지 않은 변수들은 step size를 크게 하자'

$$heta_{t+1} = heta_t - rac{\eta}{\sqrt{G_t + \epsilon}} \cdot
abla_{ heta} J(heta_t)$$
 보통 adagrad에서 step size로는 0.01 ϵ : 0 나누기 방지 (10-4~10-8)

$$G_t = G_{t-1} + [
abla_{ heta} J(heta_t)]^2$$
 Neural Network의 parameter가 k개라고 할 때, G_t 는 k 차원의 벡터

*element – wise

□ Adaptive Gradient (Adagrad)

 자주 등장하거나 변화를 많이 한 변수들의 경우 최적점에 가까이 있을 확률이 높음

'지금까지 많이 변화했던 변수들은 step size를 작게 하고, 지금까지 많이 변화하지 않은 변수들은 step size를 크게 하자'

- 장점: 학습 속도 담금질 (Step Size Decay) 필요 없어짐
- 단점: 학습을 계속하면 Step Size가 너무 줄어 안 움직임
 - 개선한 알고리즘 : RMSProp & AdaDelta

□ RMSProp (제프리 힌튼 교수가 제안)

Adagrad

$$\theta_{t+1} = \theta_t - \frac{\eta}{\sqrt{G_t + \epsilon}} \cdot \nabla_{\theta} J(\theta_t)$$

$$G_{t} = G_{t-1} + \left[\nabla_{\theta} J(\theta_{t})\right]^{2}$$

*element – wise

RMSProp

$$\theta_{t+1} = \theta_t - \frac{\eta}{\sqrt{G_t + \epsilon}} \cdot \nabla_{\theta} J(\theta_t)$$

$$G_{t} = \gamma G_{t-1} + (1 - \gamma) [\nabla_{\theta} J(\theta_{t})]^{2}$$

*element – wise

 G_t 가 무한정 커지지 않으면서, 최근 변화량의 상대적 크기 차이 유지

Adaptive Moment Estimation (Adam)

RMSProp

$$\theta_{t+1} = \theta_t - \frac{\eta}{\sqrt{G_t + \epsilon}} \cdot \nabla_{\theta} J(\theta_t)$$

$$G_{t} = \gamma G_{t-1} + (1 - \gamma) [\nabla_{\theta} J(\theta_{t})]^{2}$$

 $\begin{aligned} m_t &= \beta_1 m_{t-1} - (1 - \beta_1) \nabla_{\theta} J(\theta) \\ v_t &= \beta_2 v_{t-1} - (1 - \beta_2) [\nabla_{\theta} J(\theta)]^2 \end{aligned}$

보통 β_1 로는 0.9, β_2 로는 0.999, ϵ 으로는 10^{-8} 정도의 값을 사용

Momentum

$$\theta = \theta - v_{t}$$

$$v_{t} = \gamma v_{t-1} + \eta \nabla_{\theta} J(\theta)$$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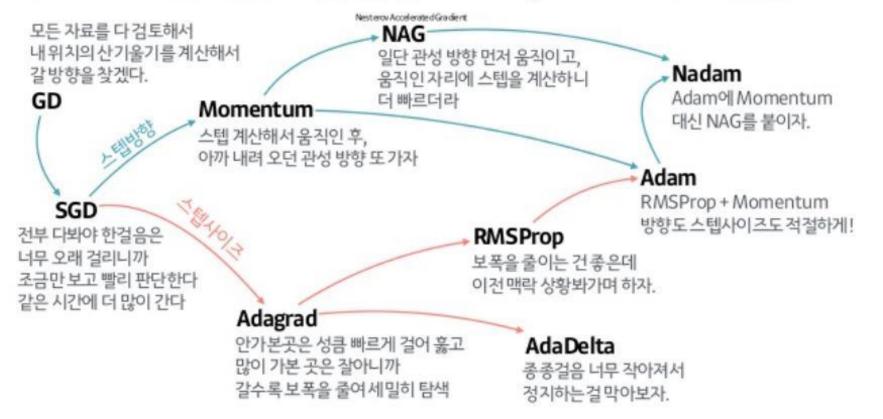
Adam

$$\theta = \theta - \frac{\eta}{\sqrt{\hat{v}_t + \epsilon}} \hat{m}_t$$

$$\hat{m}_{t} = \frac{m_{t}}{1 - \beta_{1}^{t}}, \ \hat{v}_{t} = \frac{v_{t}}{1 - \beta_{2}^{t}}$$

Adam에서는 m과 v가 처음에 0으로 초기화되어 있기 때문에 학습의 초반부에 서는 $m_{\rm t}, v_{\rm t}$ 가 0에 가깝게 bias 되어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이를 unbiased 하게 만들어주는 작업을 거침

산 내려오는 작은 오솔길 잘찿기(Optimizer)의 발달 계보



Outline

- □ 인공지능 관련 동향
- □ 딥러닝의 기초
 - 용어 및 분류(Classification)/회기(Regression) 모델
 - 퍼셉트론 (Perceptron) 및 MNIST Example
- □ 학습 및 추론 알고리즘의 이해
 - Backpropagation
 - Challenge of Learning
 - Optimizer of Learning
- □ 딥러닝 가속기
 - CNN 및 인공 신경망 가속기 연구 동향